봉축사설

부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지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전(北傳)의 기원(紀元)으로 부처님 탄신을 약 3천년전의 일(進三千載)로 써왔다. 그뒤 국제불교계의 통설로 된 남전 기원설을 따라서 올해는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그런데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처님 입멸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정작 2621년이 되어 마땅하다. 부처님 80세를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팔의 룸비니 마야당 안에는 부처님탄생 광경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방금 태어나신 아기부처님이 서서 바른손으로 하늘쪽을 가리키고 계신다. 태어나자마자 일곱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에 오로지 내가 높다'라고 선언하셨다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선언은 부처와 나라는 분별 따위를 처음부터 벗어난 해탈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 그분 혼자서 성인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오셨나? 사실인즉 지구 위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음력 4월초파일이면 온통 절과 거리에 연등을 밝혀 부처님의 광명세계를 장엄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토록 중생으로부터 섬겨지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닐 터이다. 불교는 특히 북종선(北宗禪) 당시부터 4홍서원을 법요의 중요한 회향으로 삼게 되었다. 밀교에서는 6대서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중생이 부처님과 부처님 정법에 의해서 내세우는 대승적인 발원이지만, 이에 앞서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원대한 발원(發願)을 세우신 존재이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래의 32대원 그리고 보현보살의 10대원도 우리에게는 낯익은 것이다. 게다가 사바세계 본존불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5백대원의 규모는 또 얼마나 장엄하기 짝이 없는가. 불보살이란 바로 가없는 중생에 대한 이같은 자비와 제도의 발원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아기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 서 있는 모습은 그 뒤로 수행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成道) 당시의 좌불로 바뀌어 고정되다시피한 것이다. 이는 출가 중심의 위엄을 반영하거니와 장차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 구석구석의 중생을 찾아가는 부처님, 걸어가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오고 있다.

아니, 좌불의 모습 그 자체에서도 우리는 어떤 중생에게도 빠짐없이 다가가는 불보살의 본체를 읽을 줄 알아야겠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렇거니와 이에 대한 중생은 무엇인가. 중생이란 불보살이 제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대상이거나 그런 대상도 못되는 어리석음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불쌍한 대상일 뿐이다.

중생이란 의미는 많은 생류(生類)이다. 생존하는 일체가 곧 중생이다. 그런데 이 중생은 미혹의 세계에 갇혀있으므로 이런 미혹중생을 제도하기로 서원한 존재인 불보살은 주체이고 중생은 객체로 되고 만다.

그러나 중생의 커다란 의미 안에는 불보살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불보살과 중생의 차별이 한 가닥 자취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이란 중생의 여러 종류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세계이다. 중생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세계가 아니라 불보살과 중생까지가 주객과 자타의 차별을 타파한 일여(一如)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5백대원은 〈비화경(悲華經)〉이나 그밖의 경전을 통해서 전해진대로 과거세 보장불 처소에서 세운 대비심의 성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광대무량한 발원은 석가모니불로 태어나신 이 세상의 새로운 발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부처님의 발원을 이미 부처님의 것이 아니라 중생 전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까지의 중생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뜻은 아기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자 우리 모두 중생 모두가 새로 태어남으로써 부처와 중생의 경계를 적멸시키는 그날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대웅전 앞뒤를 연등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놓는 일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동안 꺼져있던 등불을 밝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오탁악세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도 실로 온갖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는 어떤가. 종교조차도 '가난'과 '무소유'의 고귀한 덕목으로부터 멀리 표류된 것이 오늘의 숨길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일이 부처님의 5백대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새삼스레 깨쳐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석가모니부처님께 귀의한다.

열린마당

법사

"제자들아,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잡아함경〉 부처님이 성도하신후 제자가 60여명에 이르렀을 때 내린 전법선언이다. 조계종이 정한 '전법의 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태부족인 법사현황, 자격, 호칭문제, 법사제의 효율적 운영안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법사제 효율적 운영방안

서윤길 〈동국대교수 · 불교학〉

스님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법사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면 승속을 막론하고 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경전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오히려 재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모두 '포교사(포교법사)'라고 규정함으로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부대 교도소 직장 · 직능법회 등에 설법할 스님이나 재가법사가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불자들은 재가법사 보다는 스님들의 법문을 원하지만 스님들은 수행하랴 불사하랴 바빠 법문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교육 · 선발 객관적 기준 마련
스님 · 재가법사 역할분담 필요

조계종 포교원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님 · 재가법사를 두루 참여시키는 법사은행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의 교육과 선발,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훌륭한 법사를 충분히 배출한다면 법사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와함께 기존에 양성된 재가법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재가법사 중에는 포교당이나 사찰을 운영하면서 실제 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법사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死藏)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님들이 전담해 온 시중종무를 재가법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법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스님들의 다양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수행을 위주로 하고 재가법사는 포교를 전담하는 것이 불교중흥을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될 듯하다.

법사호칭 이렇게…

"스님-법사 재가-포교사 호칭 구별해야"

성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법사' 호칭은 원칙상 법력과 덕을 지닌 스님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법사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재가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헌 · 종법상에서는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다만 '법계법'에 견덕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등으로 수행력과 종단위계서열의 기본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포교법'에서는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각급 포교시설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포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재가법사'는 포교사라 함이 옳다. 우리와 비슷한 전통을 지닌 중국 · 대만에서도 스님에게만 '법사' 호칭을 쓰고 있다.

그러나, 승속망라해 관례처럼 사용되고 있는 '법사'호칭에 대한 통일문제와 재가자 품계 등의 논의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종법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대는 재가신도의 역할이 날로 높아가는 전문화시대이다. 각계각층 재가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종단의 틀로 수렴하여 종단이 사부대중의 신행공동체이자 한국사회, 나아가 인류를 구제해 나가는 서원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선도해 나가는 몫이 재가신도 지도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조계종은 포교사고시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 운영에 노력하고 포교사의 위상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 · 재가 막론 일반적 명칭으로 변화"

임기준 〈연화장세계 상임법사〉

불교교단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승가(僧伽)'는 원래 출가 및 재가 제자를 모두 포함한 4부대중을 의미했다. 이것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교단이 승단(僧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불법을 강설하는 스승은 승속을 따질 것 없이 법의 높고 낮음에 달린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승이 법단에 올라 법을 설할 때 '법사'라 불리워지며, 근대까지도 이 개념은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법사'란 개념이 출가승려와 재가법사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무속에서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이들이 법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법사'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호칭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바에는 기독교의 전도사와 대비되는 전법사로서의 '법사'를 일반화하는 문제를 고려할 만하다.

한때는 4부중에서 재가법사를 추가해 6부중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서 출가승려가 아니더라도 군법사로 임용될 때 대덕법계를 수여한 점이나 군법사가 전역후 종단이 수용하지 못해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 등이 이런 논의를 낳았다.

원래 출가승려는 교단에서 수행자였다. 따라서 포교사업이나 교리설법은 재가법사들에게 맡겨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법사현황

1만여명 활동…교육 · 관리 절실
단기교육후 품수…자질론 대두

수년전 우리나라 재가법사의 수가 7천여명에 이른다는 추정(법사회보 제14호)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조계종포교원, 대원회, 법사회, 전국법사총연합회, 법사종, 한국불교교화원, 전국여법사회 등 법사(포교사)고시를 거쳐 배출하는 전문적인 법사외에도 불교교양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사자격을 수여받는 포교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된 포교사만 해도 3천여명에 이른다.

재가법사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볼때 불자들이 재가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으로는 스님들이 신도나 일반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포교활동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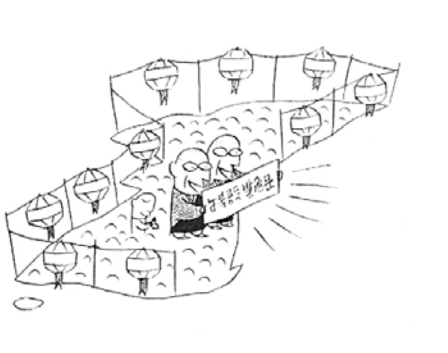
실제로 군부대, 교도소, 경찰, 직장 · 직능 · 지역법회 등에서는 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군부대의 경우, 1백10여명(군목 4백50명)의 군법사들이 3백30여 군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사 및 법당의 숫적 열세와 종단의 지원부족으로 효율적인 군포교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포교의 경우는 전체 2백50개 경찰서중 2백여개(경승실은 70여개)의 경찰서에 5백40여명(경목은 1천8백67명)의 경승이 위촉되어 있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경찰서에서는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 6만여명의 재소자가 수감중인 전국 46개 교정시설에는 교화법사가 7백여명(기독교 3천2백여명)에 불과하다. 130개의 직장법회와 53개의 직능법회의 경우는 상임법사가 있는 곳은 10%미만이며 지도법사가 없는 곳도 상당하다. 이같은 숫적인 문제외에도 '3개월 짜리' 법사가 양산되는 등 법사의 자질 문제는 더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 포교원과 불교교양대학 등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가법사제도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설립과 종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승단과의 위상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사은행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만하다. 〈재〉

현대만평

박구원



한마음으로 통일을!

현대불교 구독신청 (02)737-8881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如來는 평등과 자유의 상징
萬物이 아기 부처님 탄생을 기뻐하듯
이세상은 깨달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 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